

한국문화에서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1)

장 성 숙²⁾

가톨릭대학교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권과 관계주의 문화권에서 다르게 나타나며, 태도를 결정짓는 인간의 심리 구성체인 인지·정서·동기도 다르게 구성된다. 유교의 전통사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관계주의 문화를 발달시켰는데, 인간관계에서 기본단위에 해당되는 부자유친의 특질은 상담관계 및 상담효과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에서 상담자는 서구사회의 이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공감하기에 주력하기보다 구실이나 의무를 강조하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일깨워줌으로써 내담자의 적응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자가 치료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도편달을 해주는 어른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문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담상황에서 내담자가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적 상담모형으로 제시된 현실역동상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상적인 어른의 상으로 간주하는 엄부자모와 같은 역할을 상담자가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당면문제 파악, 합당한 공감, 배후상황을 보는 안목, 객관화 작업, 직면의 활용, 관계를 향한 능동성, 부모-자녀관계의 복원 등과 같은 점을 주요 기법으로 제시했다.

주요어 : 개인, 역할, 어른, 엄부자모, 현실역동상담

1) 본 연구는 2004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교신저자 : 장성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changss312@hanmail.net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의 변화와 다양한 자극으로 특징 지워져 있어 현대인은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응을 위한 기본 골격은 경쟁력 강화와 원만한 인간관계라고 보는데, 특히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관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사회의 문화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조율을 수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는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다룬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 우리 상담자들이 의지하고 사용해 왔던 방법들은 거의 대부분 서구사회에서 개발되고 발전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여 사용해 왔던 이유는 그러한 기존의 상담접근법들이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틀로서 보편성을 지녔다고 믿어 왔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사람이라는 조건에서는 동일하므로 이러한 믿음에도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잡한 갈등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각 문화권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공통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차별성에 대하여서도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상담이론이 반영하고 있는 문화보편성의 정도는 얼마나 되고, 또 문화특수성의 정도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자가 예민하게 인식을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된다. 더구나 상담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는 다문화상담에 대한 강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다고 본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소속해 있는 그 사회의 문화적 구성체이기 때문에 각 문화권의 독특한 환경을 떠나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그 사회문화의 특성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특성과 정서에 부합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는 현실역동상담 모형이 지닌 상담기법을 타당화시키고자 기본적인 심리구성인 인지, 정서, 동기가 동·서양에서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즉 우리가 그동안 문화가 어떻든 간에 동일한 기제나 과정에 의해 구성된다고 믿었던 지·정·의(인지·정서·동기)가 주요 두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정리되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특성을 발생시킨 주요 배경으로서 유교의 영향, 이에 따른 우리문화의 특성, 그리고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조명해 본다.

우리사회는 개인주의적 서구사회의 특징과는 다른 가족주의, 연고주의, 인정주의와 같은 특징을 지닌 '관계주의' 양상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한규석, 2002). 관계주의로 일컬어지는 우리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인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교류는 개인의 성향보다 개인들의 역할에 의해서 특징 지워짐과 동시에 강한 교류규범이 작용하고,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과 그 망 속의 위치에 의해서 정의 된다고 하다. 이러한 관계주의로 집약될 수 있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처럼 개인의 특질에 상담의 역점을 두었다가는 오히려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상담을 할 때 가능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공감적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관계주의적 특성을 띤 우리사회에서는 내담자가 주어진 관계에서 구실에 해당되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상담자는 치료적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어른으로서 때로는 업무자모와도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사회에서는 관계를 의미하고 내포하는 적응을 위해 균형 잡힌 내적상태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리에 따른 역할수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화 및 심리구성의 차이

1970년대 이후 문화의 영향에 대한 탐구는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로 부상되어왔다(Matsumoto, 2000). 문화는 인간행동의 산물인 동시에 인간행동은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확산시킨 연구는 1980년에 발표된 Hofstede의 저작 '문화의 충격'이다. 다국적 거대 기업인 IBM 직원들의 자기진작을 위해 연구된 117,000명의 자료를 요인 분석한 결과, 그는 여러 국가들을 4가지 차원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차원은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남성성이었다. 추후의 연구에서 Hofstede는 53개국에 대하여 4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에서의 서열을 제시했는데, 한국은 권위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권력거리에서는 중간인 27위,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식에서는 회피경향이 비교적 높은 16위,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개인주의 정도에서는 매우 낮은 44위, 자기주장이나 겸손이나를 의미하는 남성성에서는 낮은 41위를 보였다.

여러 차원들 중에서 비교문화연구의 기본 틀로 삼아온 것은 Hofstede(1991)와 Triandis(1989, 1996) 등에 의해 부각된 개인주의-집단주의 분류체계였다(Miller, 2002; Oyserman, Coon, & Kemmelmeier, 2002). 이 체계는 사회의 구성단위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가족과 같은 일차집단으로 보느냐하는 입장을 제공해 문화차이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해준다. 북구 유럽과 북미 국가가 대표적인 개인주의 사회로서 집단보다 개인에게 비중을 두며, 개인의 목표, 개인의 만족, 개인의 판단이 보다 우선시된다. 반면 동양권의 국가들과 남부 유럽 및 남미 국가는 개인보다 가족, 친척, 공동체 등의 일차집단에 우선적인 중요성을 두는 집단주의 사회이다. 문화심리적인 차원을 대별해주는 이러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체계가 너무 단순하다고 하여 보다 다양함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직-수평 차원을 추가시킨 분류체계 차원은 사회심리학에서 문화차이 연구에 대한 기본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개인주의 문화권과 관계주의 문화권의 차이

세계에는 여러 문화권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문화권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개인주의와 관계주의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두 문화권의 비교는 우리문화의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개인주의 문화권: 유럽-북미에 해당되는 이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력에 의한 성공과 성취를 지향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것에 가치비중을 둔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통제력과 책임을 갖고, 자기실현과 자기만족을 위해 노력하며 환경 및 집단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고자 한다(Fisk,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이러한 개인주의 사회에는 타인의 승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 자체에 비중을 두기보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합리적 선택 및 행동의 목표지향성을 이해하려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발달되어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최봉영(1998)은 합체(合體)-개별자의 관계로서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자율적인 개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로 계약하였다는 시각이다. 즉 사회는 개인들의 합체일 뿐이며, 생활의 단위는 개별자인 개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집단이나 사회가 무엇보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개인의 자아신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이성적 판단에 의하여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을 취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에 관심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구사회는 최소한의 규범으로서 공정 및 정의(justice)의 사상이 발달되었다(한규석, 2002에서 인용).

관계주의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특히 유교적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인간을 주위와의 관계를 떠나 존재 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의 조화와 사회성의 실현을 인간발달의 궁극적 지향 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 유교사상에서는 인간을 추상적이고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맺음에서만 존재하는 구체적인 관계자로 규정한다(이승환, 1999).

관계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오륜(五倫)에서는 각각의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제시하며, 규범과 역할 및 상황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즉 바람직한 인격체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도록 통제하는 능력을 지니며 주위와 화합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최봉영(1998)은 총체-부분과의 관계로 규정하면서, 개인을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사회라는 통체의 부분적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생활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속한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보다는 의무와 도리가 우선하고, 자신을 우위에 두는 개별적 행위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윤리가 팽배해 있다. 이런 문화권에서는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군자와 사리를 탐하는 소인을 구분하는데, 이는 공동체 윤리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박익문, 1998; 조공호, 1998).

특히 혈연이라는 가족을 중심으로 많은 특성들을 발달시켜온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라는 말 속에 강한 감정적 연대감, 하나됨을 의미하는 동질적 유대개념 그리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최상진·박수현, 1990). 이런 유대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 저변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의 끈끈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바탕이 되고 있는데, 우리성 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좀더 심도 있게 조망될 필요가 있다.

문화와 심리구성

우리가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 상담의 접근 및 기법들은 서구문화에 기초한 것들이었다. 즉 개인주의의 특성을 지닌 백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발달한 상담이론을 수입해 펼쳐 왔는데, 이것이 집단주의에 속하면서도 관계주의적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실시할 때는 문화적 마찰에 기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상담에서는 인간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행동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단위로 인지, 정서, 동기가 있는데, 오랫동안 이런 요소들이 보편적 특성을 지닌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기본 요소들도 문화와 독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한규석, 2002; Markus & Kitayama, 1991).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들이 각각 동양과 서양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며, 나아가 인간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

문화와 인지: 과거에는 심리학의 탐구가 주로 사고와 행동의 분석과정에 있었고, 이 과정은 문화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여겼다. 즉 사람들의 생각내용은 달라도 생각하는 방식은 같으리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가정은 인지과정 자체가 문화적 산물임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어 도전을 받고 있다(Peng & Nisbett, 1999).

서양인들이 각 요소별로 분석하여 파악하는 요소론적 인식방식을 취하는 반면, 동양인들은 사물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그 요소들의 총체적인 모양과 관계를 파악하는 속성론적 인식방식을 취한다(최봉영, 2000). 뿐만 아니라 서구인은 형식논리를 따르는 사고에 더욱 익숙하지만, 동양인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사고에 익숙하다. 나아가 서양인은 선형적 해결(둘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해결)을 선호하지만 동양인은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나 상태를 접해서 변증법적 사고(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해결책)를 더 선호한다(Peng & Nisbett, 1999).

이러한 차이에 의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분석적 사고양식을 지니면서 상황 유리적이고 개체 중심적 인간관을 갖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총체적 사고양식의 특징을 지니면서 상황 의존적이고 관계 중심적 인간관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대인평가나 귀인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유발한다(조궁호, 2003). 즉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참조나 독특성을 중시하는 성향귀인이 우세하게 작용해 대결과 경쟁을 선호하고, 적극성, 솔직성, 성취결과에 대한 능력을 중시한다. 반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 및 관계참조를 중시하는 상황귀인을 주로 하고, 타협, 화해, 양보, 협동을 중시하는 점양편향이 우세하며, 성취를 위한 노력 자체를 중시한다.

문화와 정서: 인간의 건강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서가 범문화적인 보편성과 문화 특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대체로 주관적 체험의 근거로 작용한다. 즉 문화에 따른 자기의 해석체계에 따라 정서의 체험조건, 체험되는 정서의 종류, 빈도 및 강도 등이 달라진다(Markus & Kitayama, 1991). 이렇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느냐하는 것은 해당 문화의 규범내지는 관습과 개인의 경험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정서는 사회적 구성물인 것이다(Gergen, 1994; Markus & Kitayama, 1994).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서구 사회에서도 정서를 불신하거나 조야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지만, 대체로 정서를 낭만주의 사조로 인해 진실한 내면의 발현으로 보면서 자유로운 정서표출을 강조한다. 특히 상담분야에서는 정서표출이 환기를 도와 정신건강에 유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적극 장려하는 편이고, 삶의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도 자신의 정서를 준거로 하는 자기중심적 정서가 권장되며, 주로 개인의 내부 상태를 표현하는 정서를 발달시켰다. 그리하여 서구인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수월하다고 느낄 때 기분이 고양되며, 가능한 한 부정 정서를 배척하고 정적 정서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Markus & Kitayama, 1994).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양에서는 관계를 도모하는 정서가 발달된 편이기 때문에 성취감이나 자긍심보다는 인간관계의 만족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다(Markus & Kitayama, 1994). 즉 이곳에서는 정서가 사회적인 평가에 의해 자주 유발되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타인의 인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타인중심적인 정서가 발달되고, 특히 분노와 같은 정서는 인간관계를 파괴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급적 억제해서 문제가 되는 화병을 발생시키곤 한다. 그러나 자기비판과 같은 부적 정서는 자기개선의 조건이 된다고 여겨 수용되는 편이다.

문화와 동기: 동기에 대한 연구는 인지혁명으로 인하여 한 동안 도외시되었다가 최근 문화와 인간심성의 상호구속성 탐구라는 시대정신과 함께 부상되었다(Munro, 1997). 동기는 크게 두 종류로 묶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주체성 동기로 이것은 개인을 직접적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고, 사회 환경 내의 타인과는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성취, 자율, 지배, 과시, 독립, 권력동기 등이 있다(Geen, 1995). 다른 하나는 일체성 동기로 타인과 사회 환경 사이의 공동체감을 산출하는 동기이며, 이것에 관련된 것으로는 친화, 존경, 양육, 친밀, 애착, 사회적 인정, 공감 등이 있다.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 동기가 나타나지만, 독립적 자아문화권인 서구사회에서는 독립적 주체를 강조하는 주체성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환경을 변화시켜 자신에게 맞추려는 일차적 통제가 강조된다. 사회적 동기의 측면에서도 수평관계가 지배적인 교류양상이기 때문에 두루 관계를 맺으려는 친화동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가능한 한 자신의 강점을 더 강화하고자 한다(차재호·정지원, 1990; McAdams, 1980). 즉 이곳에서는 개인중심적 사회비교, 개인지향적 성취동기, 환경통제 동기, 자기고양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동조현상은 약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관계적 자아문화권인 동북부아시아에서는 수직관계가 지배적인 교류양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계가 위계관계로 설정되어 지위를 다투는 양상과 공동체감을 촉진시키는 일체성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가급적 자신의 환경에 맞추는 이차적 통제가 강조된다(Heckhausen & Schuty, 1995). 따라서 이곳의 사람들은 개인적 선택보다는 내집단에 의한 선택을 통해 집단유대를 강화시키고자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가까운 주변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친애동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또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 개선하고자하는 쪽으로 행위의 방향을 잡고자 한다(Wheeler, Reis, & Bond, 1989).

이와 같이 기본적인 심리구성체인 인지, 정서, 동기가 동·서양에서 다르게 구성되는 것을 조궁호(2003)는 집단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대비해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사회행위의 목표(인지), 자기표현의 양식(정서), 행위의 가변성(동기)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문화유형에 따른 인간 이해양식과 강조점의 차이

차원	개인주의	집단주의
인지: 사회 행위의 목표	자율성 강조	연계성 강조
정서: 자기표현의 양식	자기주장 강조	자기억제 강조
동기: 행위의 가변성	안정성 강조	가변성 강조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앞서 집단주의 문화를 살펴보았는데, 이런 문화의 사상적 배경은 동아시아의 전통사상 중에서 특히 유교사상에 있다. 유학은 조선조에 이르러 국가경영의 최고 이념이 되면서 우리나라 정신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그 결과 유학의 가르침은 일반인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한 조사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이 유교적 행동과 습성을 유지하는 편이다(고병익, 1996). 물론, 동일한 문화권이라 해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경제적 풍요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개인의 문화성향이 조금씩 달라진다(한성열·안창일, 1990). 특히 서구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인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개인주의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인해 그들조차 본인들이 자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직은 집단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젊은 세대일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쳐 이룩된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전세대의 태도로 회귀되는 경향이 짙다. 더구나 견고한 심리적 특성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대학생들의 하나됨의 통과 의례인 폭음문화를 유지하는 거라든가 또는 선후배간의 경어체계를 고수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이기주의적 성향을 띠는 것에 대하여 개인주의화가 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유교영향과 한국인의 특성

우리나라 전통사상을 이루는 종교로는 무교, 도교, 불교, 유교 등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있다. 이 모든 체계는 다른 것과의 상호영향 및 총체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문화전통과 의식구조의 중추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것 보다 유교 또는 유학이라고 본다(이광세, 1998; 이승환, 1999; 조공호, 2003; 한덕웅, 2003).

무교는 한국인의 속성에 상당히 배여 있으면서도 원시적이고 조직화가 덜 된 형태로 남아있고, 도교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보아 사람보다 자연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띤다(최준식, 1998). 또한 불교는 현상을 고정되거나 불변한 것으로 보는 미망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임을 깨닫고 현실세계로부터 뛰어 넘을 것을 강조한다(윤호균, 1999). 이에 비해 유학은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 및 역동성을 강조하며 조화로운 관계와 현실세계를 중시한다.

유학사상은 개인보다 사회에 더 비중을 두고, 사회성(인간의 상호의존성)과 도덕성(타인에 대한 관심, 배려, 헌신)을 회복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의 사상적 모태로 자리 잡았다(조공호, 2003). 여기서는 인간존재의 의미를 개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로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의 등의 기본적인 인간

관계를 설정하면서 각 관계에 내재한 친(親), 의(義), 별(別), 서(序), 신(信)과 같은 질서 확립이 사회 행위의 목표라고 본다.

이렇게 유학사상에서는 도덕성의 근거를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인간관계에서 찾으면서 자신의 이익에 대한 추구보다 타인 및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우선시하고, 질서 및 조화는 쌍무적인 역할을 통해 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유학사상에서는 역할과 의무의 근거인 관계당사자들 사이의 연계성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사이는 ‘친애함’이라는 덕목을 갖고(父子有親) 쌍방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 관계에 내재한 기본질서가 달성되어 비로소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받고 살아온 한국인의 특성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인 몇 사람에 대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철학분야에서 윤태림(1969, 1970)은 유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의 특징을 내·외집단 구분과 차별, 가족중심주의, 권력지향성, 비합리적 인정의 추구, 열등의식과 권위애의 복종, 형식과 체면의 중시, 과거지향성, 현세 중시와 삶에의 애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 차재호(1980, 1994)는 한국인의 행동특성으로 62개를 요약하여 7차원의 특징으로 제시했는데, 이것들은 감정주의, 의존성향, 정애주의, 후한 인심, 비합리성, 높은 교육열, 위계주의이다. 그리고 최상진(1997b, 2000)이 한국인의 토착적인 특성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정 한 우리성 체면 눈치, 핑계, 의례성, 우쭐, 부자유친 성격 등이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을 조근호(2003)는 ‘사회관계 유지 및 조화 지향(주의 방향)’, ‘자기억제 및 자기억제 지향(통제 소재)’, ‘단점 수용 및 자기개선 지향(자기향상의 방안)’ 이렇게 세 차원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주의 방향에 포함되는 것은 부자유친 성격, 가족중심주의, 내·외집단 구분, 위계주의, 명분 중시, 정애주의, 형식과 체면중시, 의존성향, 우리성 등이다. 통제 소재에 해당되는 것은 권력지향성, 열등의식, 권위애의 복종, 감정주의, 핑계, 우쭐, 한 등이 있다. 그리고 자기향상의 방안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과거지향성, 현실 삶에의 애착, 높은 교육열 등을 꼽는다.

부자유친성과 효 사상

한국 사람들의 제반 특성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 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부자유친(父子有親)이라고 꼽는다(장성숙, 2003). 가족중심주의, 내·외집단에 대한 차별, 위계주의, 의존성향, 우리성 등은 바로 부자유친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자유친에서 강조되는 효는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서열관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규범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자기를 위해 헌신한 부모에 대한 배려동기에서 사람들은 이기적 행동을 지연시키고, 이타적 행동을 증진시킨다(최상진·김혜숙·유승엽, 1994). 그러므로 한국인을 이해하는 지름길은 바로 이런 중핵에 해당되는 부자유친성임을 이해하고,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상담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및 조화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애(慈愛)를 베풀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孝)를 다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쌍방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강조한다. 사회적 관계 체로서 더불어 사는 적응적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에 대한 추구보다 타인 및 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의 기초가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긴 했지만, 한국의 부모는 서양의 부모보다 자녀에 대해 관여하는 정도가 강한 편이다. 한국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해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동반자살을 하거나 부모에 의해 진학이나 결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모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분신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짙다. 그리하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가문의 존속을 위해서라든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자녀의 장래를 위해 그냥 참고 산다든가, 사회적으로 자식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 자결을 하고 싶다든가 하는 심정을 갖곤 한다. 동시에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에게 복종을 한다든가, 부모의 기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든가, 아무리 힘들어도 명절에는 고향을 방문한다든가 등의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밀착된 관계를 동일시보다는 동일체 (oneness)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정도다(최상진, 2000).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유교 문화적 전통 때문이라고 보는 반면, 홍일식(1996)은 그 이전에 우리 민족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혈족간의 유대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총괄하는 부자관계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끈끈한 것으로 자(慈)와 효(孝)라는 전통적 규범에 의해, 즉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며 자애를 베풀고, 자식은 그러한 부모에게 고마움을 넘어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에 의해 유지된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자관계는 서구의 평등윤리에 입각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바로 여기에서 혈육지정에 근거한 인간도리가 매우 강조되는 편이다. 특히 홍일식(1996)은 한국의 부자관계에 근거한 효(孝)는 유교에서 말하는 효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고 하며, 유교의 효를 제도, 관습, 법률과 같은 규범문화라고 한다면, 한국인의 효는 민족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정신문화로 언어, 신앙, 철학과 같은 관념문화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면, 우리의 철저한 기제사로 표현되고 있는 조상숭배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견고한 우리의 문화라는 것이다. 우상숭배를 금하므로 절을 안 하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추도식'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부모 돌아가신 날은 반드시 추념하는 등 한국인이라면 거의 누구든지 한국인 특유의 효(孝)에 관념적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에서의 상담자 역할

심리학계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인을 모르는 외국학자들이 제시한 이론과 개념들에 의지해 사고해 왔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규석, 2002). 사회문화적 총체인 인간관계를 주로 다루는 상담분야에서도 서구적 개념에 근거해 인간을 이해하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아개념이라는 단어가 서양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동양 사람들에게는 개체성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Markus & Kitayama, 1994).

관계란 당사자들이 소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 상담자들은 그동안 서양에서 발달된 상담이론이나 개념을 도입하면서 문화적 맥락을 얼마나 고려해왔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백인 중산층을 겨냥한 서양의 상담이론 및 기법

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이러한 현상은 학문의 의존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상황에서 야기되는 문화적 마찰은 생각보다 크다.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나 유형은 다양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들이 호소하는 주된 문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다. 설사 다른 증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감 부족이나 잠재된 분노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떠한 관계에서든 원만한 처신을 요구받는 우리사회에서 관계적 갈등이란 대체로 자신의 욕구와 주위 사람들의 기대 사이에서 생기는 마찰의 결과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무엇을 준거로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 상담의 방향 및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상담실제에서는 내담자의 제반 요인들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 인간관 내지는 사회관, 나아가 삶에 대한 궁극적 태도가 필연적으로 개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지향적인 문화에서는 무엇보다 개별적 자율이라는 '개인'을 강조하므로 상담에서 내담자 고유의 자유, 선택, 감정, 지각, 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자 내담자를 존중하며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상담에서는 무엇보다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감적 태도가 강조된다. 즉 개인주의적 문화권의 상담접근에서는 상담자의 공감반응이 변화의 핵심 조건으로 신봉될 정도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며, 특히 관계주의적 특성을 띤 우리사회에서는 개인적 자율보다는 사람에 대한 도리로서 '역할'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타인을 배려하는 역할을 강조하고자 개인의 욕구를 도외시 할 경우에는 부정적 결과가 나오게 마련이다. 즉 성숙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와의 균형 그리고 외부와의 균형 모두가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문화에 따라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하는 것에는 대비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을 공감하는 방식으로 주력해 상담했을 경우, 설사 내담자의 내적균형이 이루어져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할지라도 정작 사회생활에서는 여전히 환영받지 못해 부적응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관계주의 문화권에서 요구하는 사회가치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한국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내담자가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필히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의 본거지인 사구사회에서도 개별성을 강조한 대가로 인간소외와 고독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개인주의에 대한 한계와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Chaibong, 2000).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이제 우리도 개별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성을 부각시켜 내담자가 자신의 개인 내적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상담자는 심정을 풀어주는 이해적 태도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책무에 대하여 납득하고, 수용하며, 실천에 옮기도록 이끌어주는 가르침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두 축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 둘은 상호 무관하거나 상호배제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두 요소의 균형을 잘 살펴야 한다. 모두 다 당당한 사회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다. 다만 관계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사회에서 개인의 내적 자유나 독립에 초점을 두는 상담접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장성숙, 2001). 그렇다고 개인의 내적 요인을 도외시 하고 위치에 따른 의무와 도리를 다 하도록 역할을

지나치게 앞서워셔도 안 된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각자의 위치에 따른 역할을 강조한 덕분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외로움을 덜 느끼기는 하지만(Rokach, Orjack, Cripps, Lackovic-Grgin, & Penezic, 2001), 관계성의 대가로 개성과 자유가 억압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조윤경, 2003). 그러므로 어느 지역에서는 당당하면서도 원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확립과 타인에 대한 배려, 즉 개인(자율성)과 역할(책임성)이 골고루 살피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역동상담의 실제

한국인을 위한 한국적 상담모형으로 제안된 현실역동상담에서는 무엇보다 상담자의 역량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자가 어른으로서 역할해주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실역동상담에서는 지도편달을 해주는 어른으로서의 기능까지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문화에 걸맞은 상담자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 우리문화와 사회의 영향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증상에 대해 도움을 주는 전문인인 동시에 내담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연배가 위이며 자기 도리를 다 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말에는 아래 사람이 부모를 대하듯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어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상적인 부모상으로 간주되는 엄부자모(嚴父慈母)와도 같은 모습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장성숙, 2002).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른의 원형은 부모이며, 어른에 대한 공경은 일찍이 부모-자녀관계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끈끈한 것으로 한국인의 심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헌신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여기에서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공손함이 발달되며 이것은 정신적 양육자인 스승에게로 확장된다. 나아가 이런 태도는 상담자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담자는 스승 또는 부모와 같은 대열에 놓인 사람으로서 부모나 스승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다(장성숙, 2002).

이러한 문화적 배경아래 우리나라의 내담자들은 상담상황에서 상담자가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곤 하는데, 이러한 태도 또한 눈여겨 볼만한 사안이다. 이러한 태도는 의존적인 것이라기보다 겸양의 표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담자가 남자이거나 나이가 많을 때 내담자는 더욱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위계를 강조하는 우리문화에 따른 관념적 습성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우리 문화권에서는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겸양을 지녔는지의 여부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자보다 인격자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대등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보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랫사람의 미덕이다(최상진, 2000).

다음의 사항들은 현실역동상담 접근을 실시할 때 상담자가 역점 두어야 할 몇 가지 주요 기법들이다. 어떤 것은 다른 상담접근에서도 강조하는 상담기술이지만, 다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상당부분 우리의 독특한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① **당면문제 파악:** 우선 실제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닌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어렵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한 개인을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총체-부분의 관계, 즉 우리성에 근거한 부분자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내담자는 고통이나 갈등을 해결하고자 상담을 청하면서 체면에 손상을 입을까봐, 특히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할까봐 문제의 진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두려워한다(장성숙, 2001; 최상진·김기범, 2000).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담자는 갈등이 야기된 전후사정을 감추고, 저 멀리 있는 성장사의 아픔을 토로하는 식으로 방향을 돌린다.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도 진실을 감추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 때문에 상담자는 여간 치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문제의 진상조차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② **공감의 가치:** 현실역동상담에서 상담자가 직면을 많이 시키는데, 그렇다고 공감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공감을 생략하고서는 상담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과 한의 국민이라고 할 정도로 감정적인 면을 많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결정적인 순간은 내담자의 심정을 상담자가 낱말이 알아준다고 여길 때 생기는 것이다(최상진·김기범, 1999). 다만 현실역동상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상담자의 공감반응이 감정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아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은 직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담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③ **배후상황을 보는 안목:**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점은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만을 가지고 윤곽을 잡으려 해서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고준거가 될만한 배경 없이 주관적 보고에 의한 내담자의 진술내용은 마치 허공에 떠 있는 전경과 같아 그 실체가 모호하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보고하지 않는 배후인 전후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닐 때 비로소 문제의 진상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상담자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편적 상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장성숙, 2002). 구체적인 사례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남자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고심하는 어떤 처녀는 남자의 주의를 끌고자 무진 애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남자가 미적거리는 이유를 그가 신분상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여자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황에 근거해 상담자가 알려주자, 넉넉한 돈이 없었던 그 여자는 한순간에 오랫동안 씨름해오던 갈등의 막을 내렸다.

④ **상식에 기초한 객관화 작업:**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보다 본격적인 상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상담자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하면 할수록 좋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사회는 의무와 도리를 강조하는 차별적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어른으로서 내담자를 확실하게 되비추어주는 태도를 취하면서 객관적인 조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무조건적인 지지나 공감을 원했던 내담자라면 당황하겠지만, 질실한 문제가 있는 한 대체로 견디어내는 편이다. 만약 상담자가 잘잘못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릴 경우, 내담자는 자기의 잘못된 태도나 왜곡된 감정을 타당한 것으로 여겨 긴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담자가 권위나 위엄을 지니고 어른으로서 확실한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확실히 이끌어주는 태도도 필요하다.

⑤ **직면의 활용**: 사람들은 크든 작든 직면을 통해 깨어나고, 또 그렇게 깨어날 때 변화를 맞이한다. 그런데 내담자가 좀처럼 정신을 차리려 들지 않거나 습성을 이기지 못해 병리적인 행동을 반복할 때, 상담자는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힘 있게 직면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면이 다른 접근에서도 사용하는 기법이지만, 현실역동상담에서는 내담자를 깨어나도록 하는 데에는 직면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직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다. 흔히 사람들은 직면이 상처를 낼 수 있다며 꺼리기도 하는데, 상처란 부당하게 처리되어 억울한 감정을 생길 때 발생하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느껴 당황해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사람은 부끄러움 앞에서 가장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한 직면은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상담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직면이 벼랑 끝의 대결과도 같은 첨예한 작업이니만큼 필히 용의주도해야 한다. 지나치게 약한 내담자일 경우에는 직면을 유보해야 하지만, 보기보다 강한 존재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기우라고 본다.

⑥ **관계를 향한 능동성**: 사람은 인간사회의 일부이고 행복과 성공은 사회적 유대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일찍이 Adler에 의해 제기되었다. 나아가 Erikson도 Freud의 이론에 첨가해 초기 아동기 이후의 발달에서 심리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들이 주장하듯 건강한 자아는 모자관계를 비롯한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에서 발달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삶 그 자체가 관계라고 할 정도로 타인과의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관계에서 대외적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초리함이나 위축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갖가지 문제를 다름 아닌 관계의 부조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의 극복 방법 역시 곧 바로 관계로 진입시키는 데서 찾고자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즉 실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증상이나 문제가 원활하지 못한 인간관계에서 기인했음을 부각시키고, 내담자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도록 이해시키고, 가급적 사람들을 향하여 진일보 하도록 밀어주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무난한 관계개선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며 강화시키는 식의 과정이 필요하다.

⑦ **부모-자녀관계 회복**: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상담자의 또 다른 작업은 가능한 한 내담자에게 부모에 대한 긍정적 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장성숙, 2003). 한국인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 어디에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부모만큼 힘이 되는 존재도 없다. 대개의 경우 내담자들은 부모와 손상된 관계를 지닌 사람들인데, 상담자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 이미 확립된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내담자 자신의 부모-자녀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 어느 한 때나마 주어졌던 부모의 관심을 되살려주는 방식을 통해서든, 부모들 역시 서럽게 살아온 연민의 대상으로 부각시키든, 부모상을 살려주는 방법은 다각적으로 모색될 수 있다. 종국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한국인을 위한 한국적 상담접근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특색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에게 부모-자녀관계는 일종의 종교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대한 회복은 내담자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찾아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심(孝心)을 갖게 하여 내담자가 자신을 포함한 주변에 대해 유순한 눈을 갖게끔 도와준다.

참고문헌

- 고병익 (1996).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박이문 (1998). **동양문화와 세계문화**. 과학사상, 여름
- 윤태립 (1969). **한국인의 성격**. 서울: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 윤태립 (1970). **한국인**. 서울: 현암사.
- 윤호균 (1999). 불교의 연기론과 상담. 최상진 · 윤호균 · 한덕웅 · 조금호 · 이수원. **동양 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327-375.
- 이광세 (1998) **동양과 서양: 두 지평선의 융합**. 서울: 길.
- 이승환 (1999). **유가 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장성숙 (2002). 우리 문화에서의 상담자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47-561.
- 장성숙 (2003). 한국문화와 현실역동상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47-160.
- 조금호 (1998). **유학심리학**. 서울: 나남출판.
- 조금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조윤경 (2003).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사회심리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91-109.
- 차재호 (1980). 한국인의 성격과 의식. 한상복 · 차재호 · 이문용 · 양춘 · 안병만 · 신유근. **문화의 연속과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사회과학 연구협의회.
- 차재호 (1994). **문화설계의 심리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봉영 (1998). '사회' 개념에 전제된 개체와 전체의 관계와 유형. **동양사회사상**, 1집, 79-104.
- 최봉영 (2000). **주체와 욕망**. 서울: 사계절.
- 최상진 (1997b).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인의 고유심리에 대한 분석과 한국인 심리학 이론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상진 · 김혜숙 · 유승엽(1994). 부자유친 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pp 65-82.
- 최상진 · 박수현 (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 69-79.
- 최준식 (1998).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서울: 사계절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개정판)**. 서울: 학지사.
- 한덕웅 (2002). 한국문화는 유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4-260.
- 한덕웅 (2003). **한국유학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성열 · 안창일 (1990).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 형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116-128.
- 홍일식 (1996).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서울: 정신세계사.

- Chaibong, H. (2000). The cultural challenge to individualism. *Journal of Democracy*, 11 (1), 127-134.
- Fiske, A., Kitayama, S., Markus, H. R.,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2, 915-982
- Geen, R. G. (1995). *Human motivation: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Pacific Grove , CA: Brooks/Cole.
- Gergen, K. J. (1994). *Realities and relationships: Soundings in social constru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ckhausen, J., & Schulz, R. (1995) A life-span theory of control. *Psychological Review*, 102, 284-304.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나은영 · 차재호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 Kitayama, S. (1994).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Markus(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utual influence*. 89-13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People around the world*(2nd ed.). Belmont, CA: Wadsworth.
- McAdams, D. (1980). A thematic coding system for the intimacy mo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6, 413-432.
- Miller, J. G. (2002). Bringing culture to basic psychological theory-Beyond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omment to Oyserman et al. (2002). *Psychological Bulletin*, 128, 97-109.
- Munro, D. (1997). Levels and process in motivation and culture.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 3-15. New York: Routledge.
- Oyserman, D., Coon, H. M.,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2.
- Peng, K. & Nisbett, R. E. (1999). Culture, dialectics, and reasoning about contradiction. *American Psychologist*, 54, 741-754.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Wheeler, L. Reis, H., & Bond, M. (1989). Collectivism individualism in everyday social life: The middle kingdom and the melting po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The Counselor's Focus in Korean Culture: 'Individual-Focused' or 'Role-Focused'

Chang, Sung-soo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re exist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ism and relationism cultures. Same goes for human's psychological components(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between the two cultures, which determines human's attitude. In Korea, relationism has been developed due to the traditional Korean thought, Confucianism. Features of '*bujayuchin*', which means that 'Intimacy should exist between father and son.' and which corresponds to basic units in human relationship, have had great influence on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selor and the client and counseling effects. In Korean society, the counselor should let clients realize the significance of 'role', which fulfills their responsibilities, and help them adapt themselves to society, instead of identifying with them by focusing on each individual, which stresses autonomy.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counselor serve as not merely a curer but also as an elder who gives advices and encouragements. Since this method suits the Korean culture, clients expect the counselors to be this way. Therefore, in Reality Dynamic Counseling which is suggested as the Korean counseling model, the counselor needs to serve as *Eombujamo* which means that 'Father should be strict and mother should be affectionate.' Important techniques that the counselor needs were suggested in this thesis as follows: grasping the client's current problems, accurate understanding empathy, understanding the client's situation, taking an objective view based on common sense, applying of confrontation, active attitude toward relationship, and recov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Key Words: Individual, Role, Elder(an experienced and wise person), Eombujamo (parents who have an affectionate-disciplinary attitude), Reality Dynamic Counseling

K C I